

중공 악당의 패망은 이미 정해졌다 (련재—2)

2. 악당(惡黨)은 파룬궁의 반박해 행동에 대하여 대응할 힘이 전혀 없다.

악당은 전에 한동안 확실히 창궐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파룬궁 박해를 시작할 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기세였는데 마치 단번에 파룬궁을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 세력은 점차적으로 쇠약해졌고 점차적으로 공격의 기세가 감소되었다. 다시말해서 공격하던 데로부터 고수하는 처지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고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파룬궁의 반박해행동에 대한 악당의 대응능력은 갈수록 작아졌다. 그들 대변인격인 중앙매체는 《9 평공산당》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당인방송국의 전세계 중국인연출 공연에 대하여 중국국내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뉴욕에서 중국무용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다... 신당인 매체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파룬궁을 공격할 "유효한" 말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게 파룬궁에 접근하는 것을 알기에 중공은 감히 파룬궁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 점을 경하게 보지 말라. 중공악당은 당연히 가장 악독하고 음험한 집단이며 그들의 일처리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필요 없다. 그들은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국민과 세계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매체는 항상 백성을 우롱하는 도구였다. 그들은 매체 대변자의 역할을 아주 중요시하고 대변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들이 대변자의 활용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지극히 무기력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설명한다.

생각해보라, 애초에 그렇게 많고 그렇게 강대한 매체기구를 가동하여 파룬궁을 더럽히고 모함하여 파룬궁을 박해 했지만 파룬궁은 오히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어떠한 매체도구도 감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무슨 방법을 쓸 수 있겠는가?

모든 자유인사들과 진상을 안 모든 세인들이 점을 보았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부정을 감히 말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박해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세계각지에 핀 우담바라 꽃

불경(佛經)의 기재에 의하면 우담바라꽃은 3 천년에 한번씩 피어나는데 그때면 파룬성왕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법(正法)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 서울 서부지방법원 층집에 핀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의 못말리는 참대통에 핀.



미국 뉴욕 상주 한 주택에 핀



싱가포르 한 화원에 핀

스위스 수련장소에 련꽃이 활짝 폈다

스위스 인구는 740 만이다. 한 중국의사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여러차례 파룬궁학습반을 꾸려 제네바로부터 루세엔, 수리스, 수도 베른에 이르기까지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파룬궁학원이 점점 많아졌고 련공장소마다 련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풍겼다. 중공이 1999 년부터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은 파룬궁을 충분히 성원하고 지지해 나섰다.

아래 오른 쪽 사진은 스위스의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각성일화

국장의 정념(正念)

최근, 하북성 모 공안국 사악들이 모 국에 가서 모 국장에게 질문했다. <당신네 단위의 모 모 사람들은 아직도 파룬궁을 런마합니까?>하고 묻자 모 국장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파룬궁은 신앙이 아닙니까? 그들을 계속 런공하게 하시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호금도(胡锦涛)도 떠들지 않고 있는데 당신들이 들볶아 댈게 뭐니까? 모주석은 살아계실 때 조상에게 향을 올리는 것마저 못하게 했지만 당신들은 자기 조상을 잊은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공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런 신앙들을 다스릴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차를 마시며 폭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종일 하찮은 일을 가지고 야단법석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인들은 풀이 죽어 그만 돌아갔다.



특의공능

악몽에서 나타난 괴상한 일

1988년 8월 28일 새벽 3시, 미국 보스턴의 한 편집 싸무췌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양파와도 부근에 한 작은 섬에서 화산이 폭발되는 것을 보았다. 현지 주민들은 용암에 매몰되었고 잇따라 해일이 일어나 큰 배 여러척을 침몰시켰다. 그후 그가 악몽에서 본 사실을 문장으로 써서 발표하였다.

이튿날, 과연 악몽에서 본 것처럼 이 작은 섬에서 화산이 폭발되었다. 잇따라 해일이 일어나 163개 촌락이 훼손되었고 촌민 4만여명이 사망했다. 싸무췌는 어찌하여 악몽속에서 이 기이한 비극을 볼수 있었겠는가? 사실 그는 인체의 특의공능의 일종인 요시(遙視)공능으로 보았던 것이다.

만화감상

바꿔치기(偷梁換柱)



다른 공간

표주박 속의 세계

동한(東漢) 때 여남성(汝南城)에 악을 파는 로인이 있었다. 그의 악은 백가지 병을 고칠수 있었으며 악이 닿기만 하면 병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자주 그가 앉았던 곳에 하나의 표주박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상한 것은 매일 해가 진 후 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단지 표주박만 텅 빈 집에 걸려 있었으며 누구도 그 로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그 지방의 한 하급 관리가 그의 비밀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로인은 매일 해가 진 후 뛰어올라 표주박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로인을 만나러 갔다. 로인은 한번 슛구치더니 사라졌다. 그는 로인의 분부에 따라 몸을 슛구쳐 뛰었고 과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주박 속으로 들어갔다. 표주박속은 하나의 광활한 세계였으며 그 속에는 오색찬란한 첩첩의 루각과 정자와 굽어진 회랑이 있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로인의 좌우에 대기해 있었다. 로인은 말했다. <나는 원래 선인(仙人)으로 죄를 지어 잠시 인간세상에 귀양을 갔다네. 자네는 가르칠만한 사람이라 연분이 있어 나를 만난 걸세.> 이에 이 사람은 로인에게 절을 올리고 사부로 모셨다.

어느날 이 사람은 로인을 따라 홀연히 어느 곳으로 갔다. 로인은 이 사람을 한 무리의 늙은 호랑이들 사이에 두었는데 늙은 호랑이는 흉악하게 생긴 이빨을 갈고 있었으며 입을 크게 벌려 그를 물려고 했다. 그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로인은 이 사람을 석실(石室)에 가두었는데 석실 위에는 큰 바위를 새끼줄로 묶어 놓았고, 뱀들이 새끼줄을 갉아 먹고 있었으며 바위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 했다. 그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 로인은 하하 웃으면서 말했다. <자넨 확실히 쓸 만한 그릇일세.> 이번에는 구더기가 가득 한 분뇨를 한 소반 가져와 먹도록 했다. 그가 보니 악취가 나서 어디 먹을 수 있겠는가. 로인은 그가 먹지 않으니 탄식하며 말했다. <자넨 결국 신선으로 성취되지 못하겠네. 단지 지상에서 왕이 될 수 있고 수백세까지 살 수 있을 걸세.> 알고보니 그 악취는 선약(仙藥)이었으며 이 사람의 도심(道心)이 확고한지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이었다.

이 사람은 비록 신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세간 소도를 배워 세인을 구제했고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었다고 한다.

